

■ 연구원 소식

○ 전북지역 3·1운동 사적지 답사(11월 17일)

2019년 3·1운동 100주년에 즈음해 우리 연구원에서 군산과 익산지역 3·1운동 사적지 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는 11월 17일(토) 09시부터 17시까지 진행될 이번 답사는 3·1운동 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후원으로 광복회 전북지부와 공동으로 개최됩니다. 이번 답사는 군산시 구암동에 자리한 3·1만세운동기념관과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익산 3·1운동기념비 등을 탐방할 예정이며 연구원 운영위원인 윤상원 회원의 군산·익산지역 3·1운동에 관한 강의도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100년 전 일제에 맞섰던 선배들의 투혼을 되새기고 3·1운동의 의미와 참뜻을 찾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행사 진행 관계상 마흔 분으로 한정된 답사지만 회원이 아니더라도 일반 시민과 동반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연구원 회원 소식

○ 허병철님 신규 회원 가입

지난 주 주말 문형국, 김화령님과 함께 우리 연구원을 찾아주셨던 허병철님께서 연구원 회원으로 가입하셨습니다. 한성기업에서 30여년 가까이 근무하신 후 개인사업체를 운영중이십니다. 서울에 살고 계시지만 앞으로 진행될 연구원 사업에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빠짐없이 참석하고 싶다는 다짐도 전해주셨습니다. 모든 회원의 마음을 모아 진심으로 환영하며 앞으로 완강하고 단단한 인연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환영합니다.

■ 옛 詩와의 만남

뉴스레터에 분재되고 있는 당시(唐詩)는 유명봉 회원(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께서 2009년 범한서적을 통해 출판한 도서 “당나라 시인들을 만나다”에 수록된 내용 가운데 일부를 발췌 게재하고 있습니다. 당나라의 시세계를 안내하기 위해 당나라 시인들의 삶을 평전형태로 소개하고 있는 이 도서는 시판중이니 서점을 통해 접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소 개

설도(768? ~ 832). 우리 문학사에 황진이(黃眞伊)가 있다면, 중국 문학사에는 설도가 있다. 이들은 둘 다 기생의 신분이다. 사랑과 이별의 아픔에서 흘린 눈물을 붓끝으로 찍어, 가슴 저릿한 시로 남긴 여류시인들이다. 설도에 관해 정확한 기록은 남아있질 않다. 여러 기록들이 제각각의 모습으로 설도를 묘사하고 있는데, 대체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일치한다.

설도의 자(字)는 홍도(洪度) 또는 홍도(弘度)였다. 본래 장안(長安)의 양갓집 규수였는데, 관리였던 아버지 설운(薛郾)을 따라 촉(蜀) 지방으로 갔다.

설도는 어려서부터 영민한 재주를 드러내, 8~9살 무렵에 벌써 시를 지을 줄 알았다고 한다.

미리 정해진 서러운 운명 탓이었을까? 설도는 일찌감치 아버지를 여의고 785년 만 16세의 꽃다운 나이에 기녀가 되어, 악적(樂籍)에 이름이 올랐다. 그리고 마침 이 해에, 전란을 겪고 새로 재건된 촉 땅에 위고(韋臯)가 서천절도사(西川節度使)로 부임해왔다. 당시 40세였던 위고는 설도를 매우 총애했다. 설도 역시 왕성한 창작의욕에서 이 시기에 아름다운 시를 많이 지었다.

두 사람 사이에 1년 남짓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위고는 설도의 시재(詩才)를 높이 평가하였다. 그래서 그녀를 악적에서 빼고 교서랑(校書郎)이란 벼슬에 추천하려고 하였다. 이 계획은 군감(軍監)이 반대하는 바람에 실현되지 못했다. 그렇지만 이 일로 인해, 뒷날 기녀들은 ‘교서(校書)’라는 우아한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이광우(李匡又)가 남긴 『자가집(資暇集)』에 의하면, 806년부터 설도는 그 유명한 설도전(薛濤箋)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한다. 당시에는 하얀 종이에 시를 써서 떠나가는 사람을 전송하는 일을 불길하게 여겨, 색깔 있는 시전(詩箋)을 애용하는 풍토가 성행하였다. 이때 설도는 완화계 주변에 늘어선 종이공장을 늘 살펴보다가, 마침내 맨드라미나 연꽃의 꽃물을 이용해 분홍빛의 아름다운 종이를 만들어냈다.

사람들은 설도가 만든 이 새롭고도 아름다운 종이에 ‘설도전’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서로 다투어 소장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마침내는 황실에서도 사들이는 진품이 되었다. 설도가 설도전을 만들기 위해 물을 길었던 샘은 지금도 ‘설도정(薛濤井)’이란 이름으로 남아있다.



사천성 성도 금강 변에 있는 우물 <설도정>

설도가 한창 연분홍의 설도전을 만들어낼 즈음에, 설도에게 다시금 핑크빛 사연이 다가왔다. 중국 문학사에서 가장 큰 스캔들로 일컬어지는, 설도와 원진(元鎮; 서기 779~841) 사이의 사랑이다. 41살의 설도에게 10년 연하인 원진이 운명처럼 나타났다.

원진은 백거이(白居易)와 함께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시인이었다. 원진은 뒷날 「앵앵전(鶯鶯傳)」이라는 소설도 남겼는데, 「앵앵전」은 다시 「서상기(西廂記)」라는 희곡의 모체가 되었고, 「서상기」는 또 우리나라 「춘향전(春香傳)」의 형성에 깊은 영향을 끼쳤다.

809년 원진은 궁궐 안의 권력다툼에 밀려, 성도에서 가까운 동천(東川)으로 좌천이 되었다. 이 해 3월에 원진은 문명(文名) 높은 설도를 방문하였다. 설도는 자신이 만든 설도전에 100여 편의 시를 지어 처량한 신세의 원진을 위로해주었다. 원진 또한 설도에게 향하는 뜨거운 정열을 시로 화답하였다. 두 사람은 헤어질 때, 둥근 벼루 하나를 반으로 나누어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였다고 한다. 여러 기록들을 보면, 원진은 천하의 바람둥이에 출세지향적인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 먼저, 설도를 만날 때 이미 그는 부인 외에도 여러 첩을 두고 있었다고 한다. 또 다른 이야기로는, 당대의 권력자 위하경(韋夏卿)의 집안과 결혼하기 위해 설도를 가차없이 버렸다고도 한다.

아무려나 원진도 815년 통주(通州) 땅의 사마(司馬) 벼슬로 전직될 때까지, 설도를 깊이 사랑하고 가까이하였던 모양이다. 그 후로도 원진은 조정의 미움을 받아 이곳저곳의 벼슬아치로 떠돌아다니는데, 와중에도 늘 설도에게 사랑의 시를 보냈다. 설도 역시 원진을 향해 간절한 그리움이 담긴 시를 굵디고운 설도전에 써 보내곤 하였다.

서로 만나볼 수 없어도, 애뜻한 사랑의 시는 오랜 세월 오갔다. 이 글의 서두에서 소개된 대로, 설도가 목매이게 불렀던 「춘망사」도 이때에 지어졌다. 이번 주에 소개할 작품은 설도를 향한 그리움을 토해낸 원진의 연작시 이사(離思) 중 네 번째 수이다.

■ 작품 및 번역

離思(第4首)

曾經滄海難為水(증경창해난위수)

除卻巫山不是雲(제각무산불시운)

取次花叢懶回顧(취차화총라회고)

半緣修道半緣君(반연수도반연군)

이별의 그리움(넷째 수)

푸른 바다를 보고나면
세상의 강이 대수롭지 않고

무산을 제쳐놓으면
구름이라 할 것 없으니,

아름다운 꽃을 봐도
돌아보고 싶지 않는 것은

반은 도를 닦기 때문이고
반은 그대 때문이래요.

■ 역사 속의 오늘

人災 공화국 - 1994년 10월 21일

우리나라 건물 붕괴 사고가 처음으로 큰 주목을 받은 것은 약 50여년 전이다. 1970년 4월 8일 새벽 6시 30분. 서울 시민들을 충격에 빠트리는 뉴스가 전해졌다. 서울시가 마포구 창전동에 야심차게 추진했던 지상 5층, 15개동 규모의 와우아파트 한 동이 무너졌다는 소식이었다.

이 아파트는 준공된 지 석달 밖에 되지 않아 부실공사 논란이 일어났다. 인명피해는 아파트에서 잠을 자던 주민 33명이 사망했고 38명이 다쳤으며 붕괴되는 과정에서 경사 밑에 있던 판잣집을 덮치면서 사상자수가 더 늘었다.

당시 작성된 보고서에 따르면 와우아파트는 서울시가 책정한 건축 비용의 절반도 안되는 비용으로 건설됐으며 건물 자재 상당수가 빠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공사비를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성수대교는 한강의 11번째 다리로 1977년 착공돼 2년 만인 1979년 10월16일 완성됐다. 1,160m의 교량 북단과 남단에 인터체인지가 설치됐고 국내 최초로 '게르버 트러스(Gerber Truss)' 공법으로 세워졌다. 성수대교는 기능 위주로 세워진 이전의 한강 다리들과는 달리 미관을 최대한 살리고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건설됐으나 부실공사와 엉성한 관리 때문에 개통된 지 15년 만에 어이없는 참변이 일어났다.

1994년 10월 21일 금요일, 오전 0시 20분경과 오전 2시 30분 경 세로 1.3m x 2m 크기의 철판이 성수대교 상판 이음새에 깔려 있음을 운행하던 운전자들에 의해 목격되었다. 이는 상판 이음새 부분에 심하게 벌어진 틈새를 덮기 위한 서울시의 땀질식 응급 조치였다. 하지만 균열은 시간이 갈수록 커졌다. 사고 당일 새벽 6시경에 성수대교를 통과하던 차량의 운전자는 이음매를 지날 때 충격이 너무 커서 서울시에 직접 신고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게도 교량진입 통제 등의 긴급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 비극적인 대형 참사가 일어났다.

1994년 10월 21일 오전 7시 48분경에 성수대교의 제10·11번 교각 사이 상부 트러스 48m가 붕괴되었다. 사고 부분을 달리던 승합차 1대와 승용차 2대는 현수 트러스와 함께 한강으로 추락했고, 붕괴되는 지점에 걸쳐 있던 승용차 2대는 물속으로 빠졌다.

이후에 서울대공원에서 변동 방향으로 가고 있던 한성운수 소속 16번 시내버스는 버스 기사 유모 씨가 붕괴 지점을 발견하고 최대한 급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이미 때는 늦었고 전륜은 교량 밑으로 내려가고 후륜이 붕괴 부분에 걸쳐 있다가 차체가 뒤집어지면서 추락했다. 그 추락 과정에서 사고 버스 창문에 달려 있던 창틀과 창살은 버스 지붕 쪽이 상판 쪽으로 뒤집힐 때 큰 충격으로 인해 교량 밖으로 날아갔다. 결국 버스 1대, 승합차 1대, 승용차 4대 등 모두 6대의 차량과 49명의 탑승자가 추락했고 이 중 32명이 사망했다. 사상자의 대부분이 곤두박질되어 추락한 시내버스에서 발생하였다. (탑승객 30명과 버스기사 1명 중 사망자는 무려 29명, 생존자 단 2명이었다.)

마침 사고 발생 시각이 아침 출근, 등교시간이었던 만큼 등교하던 학생들을 비롯해 출근 하던 직장인, 교사 등 평범한 이들이 불귀의 객이 되었다. 특히 그 버스를 타고 아침에 등교하던 무학여자중학교(現 무학중학교) 학생 1명과 무학여자고등학교 학생 8명이 이 버스를 타고 가는 중이었고, 이 참사로 인해 9명의 여학생들이 한꺼번에 세상을 떠났다. 이로 인해 무학중학교와 무학여자고등학교는 2018년 현재도 추모일을 지정하여 학생들의 넋을 위로하고 있다.

그 밖에도 서울교육대학교 재학생이던 이승영(당시 21세) 씨는 교생실습을 가느라 역시 시내버스에 탑승했다가 생을 마감했다.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사고가 나기 1년 전부터, 한강교량의 보수 및 관리가 매우 부실하여 붕괴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보도를 시리즈로 내 보낸 적이 있었다. 전반적으로 교량 보수가 시급하다는 진단 및 붕괴의 위험성도 무척 강조했고, 특히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서울시 당국에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지만, 오히려 서울시는 안일한 대처와 반응을 보이기만 해, 고발성격으로 이들의 인터뷰를 뉴스에 보도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당국은 이런 참사가 나기까지 교량의 위험성을 방치하였다.



무너진 성수대교

이 사건 이듬해 삼풍백화점이 붕괴해 1,5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참사가 일어났다. 이후에도 대구 상인동 가스 폭발, 씨랜드 화재, 대구 지하철 화재, 마우나오션리조트 참사, 세월호 사건 등이 人災로 연이어 이어졌고 2018년 올해에도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의 한 공사현장 바로 옆에 위치한 유치원 건물이 일부 붕괴되는 사고가 벌어졌다.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현장은 이미 6개월 전에 붕괴 위험이 감지됐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와 시행사 측에서 공사를 강행했다는 의혹이 있다. 천재일우로 밤 시간에 사고가 벌어졌지만 만일 유치원이 운영중인 낮 시간에 붕괴되었다면 상상하기 어려운 끔찍한 참사가 벌어졌을 것이다.

天災야 어찌할 수 없는 운명적 사고라 하겠지만 우리 현대사에서 반복되는 人災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고가 사건으로 변하는 일이 너무도 자주 일어났고 지금도 예비되고 있다.

24년 전 오늘 아침, 한강의 11번째 다리가 무너졌고 서른 두명이 별이 되었다...

■ 도농상생

★ “닥터프란체스코 마유(馬油) 마스크팩” 안내

우리 연구원 회원이며 독일에서 활동하는 김진경 회원이 독일현지에서 마유 원액을 직접 생산하여 한국 화장품업계에 공급하여 왔는데 우리 연구원의 운영을 돕고자 시중 보다 높은 함량의 마스크 팩을 생산하여 유통과정없이 회원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해 드립니다.

마유는 그 어떤 원료보다 안정성 있게 피부 개선에 도움을 주며 아토피 피부나 피부 트러블에도 효과적입니다!

◎ 효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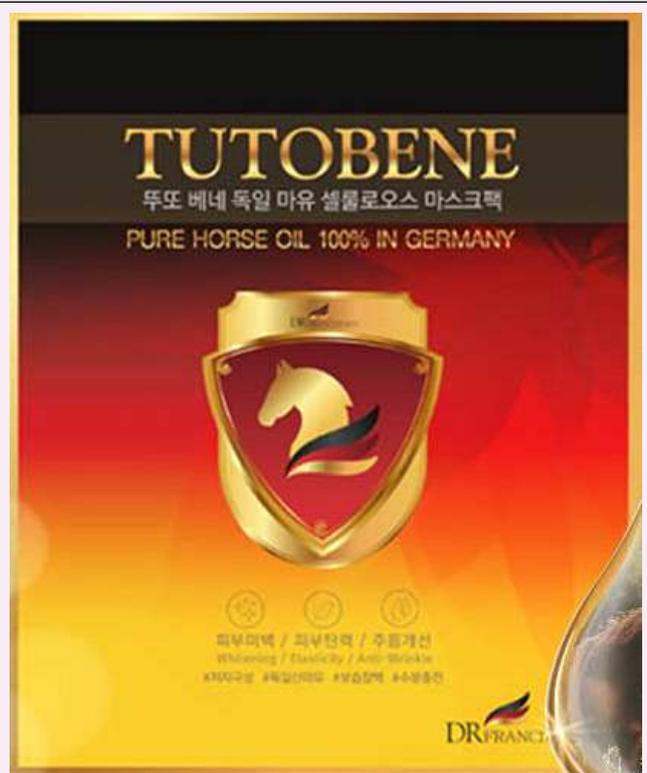
- 피부 밸런스를 맞추어 건강한 피부로 가꾸어 줍니다.
- 피부 노화 및 유해 환경(공해, 자외선, 담배연기 등)으로부터 피부를 지켜줍니다.
- 눈에 띄게 맑고 빛나는 피부톤으로 가꿔주고, 탄력을 높여줍니다.



< 25g * 5매 >

◇ 시 중 가 : 1만 5천원

◇ 연구원 판매가 : 1만원



< 30g * 5매 >

◇ 시 중 가 : 4만 5천원

◇ 연구원 판매가 : 2만원

◎ 마스크팩 구매 수익은 전액 연구원에 기부됩니다. 좋은 기운을 나누는데 사용하시는 기분 좋은 소비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